‘대한민국 과학축전’ 광주서 열린다

국내외 160여 학교·기업·기관 등 참여

8월1일부터 6일간 국내 최대 과학축제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올해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광주시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6일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개최 도시로 광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 등은 지난 15일 프리젠테이션 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개최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오는 8월 1일부터 엿새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염주체육관, 광주시청 등에서 개최된다. 사업비는 과학기술부가 10억원, 광주시 1억5천만원, 광주시교육청 5천만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160여개 학교와 기업, 기관, 연구단체가 참여해 500~600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의 과학 축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 과학기술의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과 신기한 과학현상을 보여 주는 ‘산업전시관’ 등이 마련된다. 또한 80여개 학생과학축전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그 동안 서울 코엑스(COEX)와 일산 킨텍스(KINTEX) 등 주로 수도권에서 열렸으며 비 수도권에서는 광주시가 포항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시는 올해 축전의 주제를 ‘창의적 과학과 남도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정했다. 축전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현장과 가사(歌辭)문화권 등 남도 지역의 문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광주학생과학축전을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포함시켜 열기로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체험부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선대 기숙사와 그린빌리지에서 400여명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국광기술원, 광주디자인센터, 한국생산기술원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클러스터와 나로우주센터 연계 투어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전 기간에 약 20만명이 광주를 방문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장석 시 과학기술담당은 “이 축전이 그동안 과학문화 체험기회가 거의 없었던 우리 지역에 과학문화를 꽃피우는 전환점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원대한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3기 이후 과학산업 발전과 국토 서남권 과학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R&D특구 지정, 광주국립과학관 및 과학교류협력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과학도시 광주’의 위상 정립에 힘써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주 여성 ‘전통 장 담그기’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압촌동 광주콩종합센터에서 열린 ‘전통 장 담그는 날’ 행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20명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통 장 담그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 여성 등 남구 주민 100여명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잘 띄운 메주 고르는 법, 소금물 농도 맞추는 법 등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거점 영어체험센터 2곳 운영

서석초 3월·광천초 5월에 개관

영어 교육 각종 프로그램 가동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정책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올 봄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2곳에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구의 서석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다음달 개학과 함께 오전 영어체험반과 방과 후 영어프로그램, 학부모와 함께 하는 액티브(ACTIVE) 영어교실 등을 운영한다.

원어민 강사 4명을 포함 10명의 전담 강사들이 배정된 이 센터는 오전 영어체험반의 경우 동부 관내 5학년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방과 후에는 다른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유상 영어강좌(월 6만원·저소득층은 무료) 3개 과정을 진행한다.

이 센터는 국비 3억5천만원과 구비 1억원 등 4억5천만원을 들여 빈 교실 7칸을 리모델링해 만든 학습공간과 우체국, 은행, 병원 등 상황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이 센터는 지난 두 달동안 방학 중 영어캠프와 방과 후 영어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는 이 센터 운영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억원씩 모두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동구는 매년 1억원, 동부교육청은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서부교육청 산하 광천초등학교에 건립중인 영어체험센터 역시 오는 5월 중 개관한다. 광주시교육청과 서구에서 4억5천만원을 들여 신설되는 이 센터에 시는 매년 2억원, 서구는 1억원, 서부교육청은 5천만원씩 연간 총 3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의 대규모 영어마을이 예산 투입 대비 학습효과가 불투명하고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 시설을 활용한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광천영어센터는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공사 시작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공사가 28일 시작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림청의 ‘녹색자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 공사에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36억원 등 모두 55억원이 투입된다.

2만㎡에 이르는 광장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소나무 등 16종 2만3000주, 초화류인 상록패랭이 등 2만9800본을 심고 잔디 1만3118㎡와 생태연못, 벽천, 산책로 800m, 시민편의 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주향교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

3천㎡ 규모…광주시 하반기 실시설계 사업 착수

유림문화의 산실인 광주향교 일대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인근을 ‘아시아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교 일대 역사문화 공간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 광주시 유형문화재(제9호)로 지정된 향교는 그동안 출입구와 주변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 때문에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문화자원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시는 향교 일대를 역사문화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포함시켜 올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해 역사공원 대상 부지인 향교 출입구 인근 주택가 등 3천㎡를 사들여 유교문화를 상징하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향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공간이 조성될 경우 사직공원, 광주공원을 아우르는 ‘아시아문화권’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권’은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도심 리모델링 관련 7대 문화권조성 사업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광주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향교 주변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신청하세요

市 내달 15일부터 접수…설치비 90%까지 지원

광주시는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7일 “다음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내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각 구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현장 실사 및 설치 여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기존 건물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거나 부설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 뒤 원상회복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주차장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나눠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와 주차분쟁, 소방도로 진입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27가구에 대해서는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기념품·선물세트 과대포장 일제 점검

광주시는 입학 시즌과 화이트 데이 등을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품과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잡화, 문구, 화장품, 제과,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살피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8일)	
강동욱	233-3119
●법무사회 법률상담(28일)	
김동안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